

□ 기술애설 □

네트워크를 이용한 경영교육

중앙대학교 양광민*
이화여자대학교 김진호

1. 서론

최근 들어 기업활동의 대상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8년 봄 미국 상무성은 장문의 보고서를 통해 종전의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 건설 및 정보기술과 경제에 관한 미국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역할과 전망을 개진하고 있다.¹⁾ 이 중 네트워크의 확산에 관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의 일간 신문은 2000년까지 96년 기준 광고비의 절반을 네트워크에 잃을 것이다.

-미국 성인의 38%는 여행계획 시에 인터넷을 사용한다.

-네트워크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형 서점의 경우 대략 150,000 여종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web 서점은 2,500,000 여종을 전시한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인터넷은 과거 어떤 수단에도 비해 보다 많고 완벽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의 발전은 경영학 연구와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 경영의 특성 중 정보기술과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서는 우선 경제활동의 대상이 유형채로부터 무형의 지식/정보 중심으로 급속히 이행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종전 경제

활동의 대상과 확연히 구별되는 한계비용이 거의 영에 가깝다는 특징이 있다(이점은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기존의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보다 더욱 그러해졌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기업에서는 네트워크화에 따라 경영 단위간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고, 기업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영학은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를 맞아 연구 및 교육 영역을 변화시켜야하는 시점을 맞이했다.

또한 기존의 경영학은 연구대상인 기업 또는 조직이 통일된 목표를 갖는 하나의 유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등 여러 세부 전공 분야별로 서로 상이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접근하는 과정에서 유기적 통합성이 결여되는 문제에 봉착하여 왔다. 그러나 네트워크화에 따른 정보흐름의 개선은 경영학 세부전공을 통합하는 톱-다운(top down) 연구방법을 가능케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화 과정에서 경영학 교육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경영학 교육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경영학 교육발전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2.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영학 교육

2.1 기존 경영학 교육의 한계

전통적으로 경영학 교육은 여러 인접분야의 전문지식과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의 각 분야 및 기능의 통합능력

*중신회원

1) 미국 상무성, 1998.

(integration), 도전 정신,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위험관리,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팀워크 등 협상력 및 창의력, 통찰력이 강조돼 왔다.

그러나 기존 경영학 교육에서 기초가 되는 경영학원론은 그 내용이 경영학의 각론을 모아 소개해 놓은 개론에 불과할 뿐, 각론에 적용되는 바탕이 될 수 있는 통합된 원리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경영학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이윤 추구 등 공동의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학의 각론은 접근 방법들이 서로 상이하며, 경영학원론은 이를 종합화하여 전체 조직의 목표에 부응케 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즉, 기존 경영학은 하향식접근(top-down)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교육방법론에서도 기존 경영학 교육은 알려진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는데 치중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 경영이 요구하는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특히 협상력, 도전성, 통찰력 등)들은 기존의 일방향성 강의 중심 교육방식에서는 효과적으로 육성되지 못하는 속성이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은 경영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영학 분야의 인력 수요와 분야의 보편성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경영학 교육이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다고 볼 수 있다.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분야와 달리 강의실과 교수요원 만을 갖추면 된다는 것이 이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이었다. 따라서 경영학은 많은 경우 대형 강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육부의 방침이 경영학 분야에서 실험실습비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서도 경영학 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식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경영학이 실천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실험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일방향 대형 강의 위주의 수단에 의존해 온 것이다.

이러한 강의 중심의 교육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통합력, 의사소통력, 팀워크 등과 같은 전문 지식 이외의 경영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데는 적절치 못함은 물론이다. 세미나, 사례 연구 등이 강의에 보조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나, 이 방법들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적정 클래스 규

모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클래스 규모의 축소는 결과적으로 교육비용 증가를 유발하여 대학원 이외의 강의에서는 보편적이지 않음이 현실이다.

2.2 경영학 교육에서 네트워크의 활용

경영학 교육에 있어 네트워크를 도입하는 타당성을 이해하려면 우선 네트워크의 매체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터넷의 등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네트워크는 여타 대중매체와 비교해 상호작용이 가능한 쌍방향 매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문서, 이미지, 애니메이션의 멀티미디어를 지원하며, 실시간에서 가상공간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자동에이전트(agent)를 이용할 경우 정보검색 등 편리한 부가기능을 가질 수 있으며, 여타 매체에 비해 비용효율적인 강점이 있다.

위의 네트워크 특성은 실제 기업경영에서 요구되는 기술(arts)에 속하는 여러 능력(통합능력, 의사소통, 협상, 팀워크, 통찰력,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을 학습하는 경영학 교육에서 적절한 활용이 가능하다. 경영학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들 능력은 대체로 인간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네트워크 활용은 전통적인 획일적, 일방향 경영학교육을 비용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선택이다.

기존의 강의실 중심 교육에서의 정보의 흐름은 일방향이고 따라서 학생은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기존지식의 전달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상호작용과 관련한 여러 경영능력의 배양에는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능동적 역할이 중요한 데 반해, 공간적, 시간적으로 제한된 전통적인 대형 강의실에서는 이의 실현이 어렵다. 실공간에서의 교육을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공간(시간 및 공간적)으로 확장하여 교육할 수 있다면 다수의 학생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강의에 병행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팀 과제들을 부과하고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이용해 과제를 수행토록 한다면 또 다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정해진 강의시간 이외에 학생들 각자가 팀을

이루어 과제를 수행하므로, 강의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팀 참여자간의 의사소통 방법(정보기술 등을 이용한 다양한 소통방식), 팀워크 및 발표력을 배양할 수 있다. 또한 과제 결과를 다른 학생들에게 보일 수 있어 참여자들에게 잘 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가 된다. 특히, 강의실 환경에서의 발표는 시간의 경과와 같이 발표 내용이 소멸되는 일과성 성격을 가지나, 네트워크에서의 발표는 얼마든지 지속적일 수 있어 참여 학생들이 잘 하고자 하는 선의의 경쟁의식(peer pressure 및 positive reinforcement)을 갖게 되어 스스로 학습에 능동적,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보다 발전된 교육방법이다.

또한 네트워크상의 교육은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가능케 해주는 장점이 있다. 자연과학 접근 방법과 달리 경영학과 같은 사회과학은 실험이 쉽지 않아 실험을 통한 학습에 제약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제약은 컴퓨터를 통한 모의실험으로 다소 해소할 수 있다. 학생 개인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컴퓨터만을 이용하는 모의실험에 비해, 네트워크 상의 모의실험은 보다 현실적인 경영환경(가상기업 등)을 반영할 수 있어 다른 어떤 경영학 교육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은 경영학 교육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들을 검토해본다. 우선 의사소통(presentation) 도구로서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PowerPoint나 Adobe의 Acrobat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멀티미디어(애니메이션) 교육내용을 네트워크에 발표할 수 있다. 현대경영에서 관련변수 중 시간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 이러한 시간변수가 포함되는 이룰테면 애니메이션되는 결과를 기존의 매체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네트워크 출판으로서 강의안 또는 참고 교육안 등을 웹페이지로 만들어 인터넷상에 출판할 수 있다. 또한 전자메일을 통해 효율적이고 빠르게 네트워크상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검색엔진을 활용하면 인터넷상의 방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기존의 여러 정적도구에 비해 상호작용의 속도증가에서 오는 커다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동작업(collaboration) 소프트웨어 또는 비디오 회의도구(video conferencing)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관심을 끌고있는 전자상거래 실험 등 모의경영 교육을 위해서라면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구축 및 전자경영(eBiz) 실습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교육 기법들은 경영학 교육의 현장 모의실험을 가능하게 해 줄 뿐 아니라 비용, 시간 효율적이고 실시간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재교육에도 또한 널리 활용될 수 있다.

3. 네트워크상의 경영학 교육 사례

3.1 가상교육 현황[1]

현존하는 가상교육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존 일반대학의 일부 코스를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교육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Minnesota 대학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Wisconsin 대학의 중국어 강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 부류는 가상대학을 일반대학의 분교 형태나 특수대학원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다. 미국 Phoenix대학의 온라인 캠퍼스나 캐나다 New Brunswick 전문대학의 가상 캠퍼스가 이에 해당된다.

가상교육의 세 번째 부류는 기존의 원격교육을 컴퓨터 통신에 기반한 가상교육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인 영국 Open University의 가상학교는 전세계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공간적인 제약을 탈피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1994년 설립되었다. 네 번째 형태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가상대학이다.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미국의 Western Governor's University, Athena 대학의 Virtual Online University가 해당된다.

국내 가상교육의 대표적인 예로서 유니텔 가상대학을 들 수 있다. PC통신업체 유니텔은 인터넷 가상대학을 개설하고 PC통신서비스 유니텔에 가입한 20세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1997년 3월부터 무료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대학은 유니텔이 처음이
나 공공통신망(하이텔, 천리안 등)을 활용한
통신학교는 이미 국내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왔
다. 원래 이들은 각 대학의 재택 수업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반인도 청강할 수 있다. 한편
1997년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로부터 ‘가상대학
프로젝트’의 제안서를 받고, 이를 검토하여 가
상대학 시범 및 실험학교들을 선정한 바 있다.
교육부 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학위과정 중심의 가상대학을 시범적으로 운영
하며, 더불어 공공/민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하도록 하여 학점은행제의 연계시킨다는 것이
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몇몇 대학의 일부 강좌
를 중심으로 실험적인 수준에 머물던 국내 대
학들의 가상교육은 본격 궤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2 이화여대 인터넷 강의 사례

3.2.1 교육내용

이미 실험적으로 실시되어온 국내 대학의 네
트워크를 활용한 경영학 교육의 사례로서는 이
화여대 김진호 교수의 ‘경영과 사회’ 과목을 들
수 있다. 1997년 2학기 처음으로 개설된 이 과
목은 경영학 원론을 교양과목으로서 강의하기
위해 학교측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준비되었
다.

이 강의는 김진호 교수의 개인 홈페이지 ‘금
용이야기(<http://mm.ewha.ac.kr/~jhkim/>)’
안에 설치되었다. ‘금융이야기’안의 ‘강의’ 부분
에서 여러 다양한 개설 과목중 ‘경영과 사회’를
클릭하면 바로 강의계획안으로 연결된다. 강의
계획안에는 여타 교실강의와 같이 강의목표,
교재 및 강의순서, 평가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
다. 교실강의의 강의계획안과 크게 다른 점은
계획안 각 부분이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부분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선 강의계획안은 이화여대 인터넷 강의실
과 곧바로 연결되어있다. 이화여대 인터넷 강
의실의 주요 시설로서는 우선 ‘공지사항’을 들
수 있다. 여기는 수업진행과 관련하여 교수가
학생들에게 공지할 사항을 전달하는 곳이다.
학생들은 인터넷 수업에 들어오는 매번 이곳을

방문하여 새로운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공개자료실’에서는 교수가 올린 각종 수업자료
를 받아보고 ‘레포트함’은 학생들이 필요할 경
우 레포트를 제출하는 곳이다. ‘토론방’은 인터
넷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별 토론이 이루
어지는 곳이다. 이곳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대화방’은
일명 채팅룸(chatting room)으로서 팀별 프로
젝트 수행시 팀원간 실시간(real time) 의사소
통 수단으로 쓰인다. 물론 그외 친목도모 등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다. ‘자유게시판’은 학생
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곳이다. 주제토론
을 제외한 내용들(예: 친목도모, 팀 모임 안내,
교수에게 건의사항...)을 올릴 수 있다. 마지막
으로 ‘Q & A’는 주제토론과 무관하게 수업진행
과 관련한 모든 질문을 교수나 조교에게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주제토론은 ‘토론
방’에서만 이루어진다.

‘경영과 사회’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기능의 적극적인 활
용이다. 유명인사의 주제별 강연, 관련 사진,
외국대학의 해당 강의안,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강의안과 직접
연결되어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교수가 제시
하지 않은 기타 인터넷 사이트들을 검색하고
활용하여 스스로 추가적인 학습을 할 것이 적
극 권장된다. 두번째 특징은 게시판과 채팅룸
의 활용이다. 이를 통해 교수와 학생은 일방향
교육이 아닌 쌍방향 대화를 통한 교육을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이 과목 수업을 듣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
적인 인터넷 지식으로서는 먼저 web browser
(Netscape 4.0 이상 권장) 사용법을 든다. 그
외에도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하기 위
해서는 Real Audio, Streamworks 등 plug-
in program 사용법을 익혀야 하며, 팀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HTML 문법을 사용한 ho-
mepage 구성법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적극적인 자료조사를 위해서는 검색엔
진을 통한 인터넷 검색 기능에도 익숙해야 한
다.

수업 진행방법은 우선 매주 올라오는 강의안
을 열심히 공부한다. 단순한 강의안 외에 hype-

rtext로 연결된 각종 문서 및 multimedia 자료들도 포함하여 필히 공부해야 한다. 그러나 강의안은 학생들이 해당 분야를 스스로 공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내서 역할만을 하게끔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인터넷상에서 찾아서 공부해서 채워 넣어야 한다. 즉, '경영과 사회' 인터넷 강의는 교수와 학생이 상호 협동하여 만들어 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매주 강의안에는 '생각해봅시다'라는 문제가 몇 개씩 있다. 학생들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스스로 토론을 벌여야 한다. 교수의 역할은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기 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데 그친다. 이때 창의적 토론, 다른 학생의 의견에 대한 활발한 분석 평가, 인터넷상의 자료를 많이 찾은 흔적이 있는 글일수록 많은 평가점수를 받는다. 글 올림 횟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좋은 글을 올리는 것이다'. 물론 '생각해봅시다'에 제시한 내용과 전혀 별개의 문제라도 학생 스스로 제기하여 토론을 끌어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료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의 검색엔진의 제공과 함께 한국언론연구원의 KINDS DB가 제공된다. 이곳에서는 국내 주요 일간신문 및 경제신문들의 대부분 기사가 DB로 정리되어 있다.

학생들은 주어진 주제 또는 스스로 발굴한 주제에 대해 상호토론을 벌이는 외에도,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경영학과 관련한 자유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별 홈페이지를 만드는 팀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팀 과제는 6~10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한다. 학생들은 수업시작 후 2주일 내에 팀구성 명단을, 중간고사 주간 시작 이전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계획서에는 팀별 연구주제와 간단한 연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주제선택은 수업범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즉, 매주 경영학 세부 분야별로 벌이는 주제토론과 학기당 팀 과제 수행의 두 가지가 이 과목에서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교육과제라고 할 수 있다. 평가는 토론방의 주제 토론 참여 70%, 팀별 과제 30%로 구성되었다. 필기시험이나 통상적 레포트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 과

목의 큰 특징이다. 주제토론 시에는 본인 의견 제시의 창의성, 다른 학생 의견에 대한 토론/평가, 인터넷상의 자료수집 노력, 글 올림 횟수 등이 주요 평가대상이다. 팀 과제 수행은 조사 내용의 창의성과 재미, 인터넷상의 자료 수집 노력을 주로 평가한다.

3.2.2 네트워크 교육경험을 통한 교훈[3]

이화여대 '경영과 사회' 과목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강의를 해 본 결과로서 얻은 긍정적 효과로서는 교실수업에서 보지 못한 활발한 쌍방향 자유토론의 활성화로 학생들의 창의적 비판능력, 다양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경영학의 다양한 세부 분야들을 연결하는 통합적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네트워크 강의는 성공적이라고 판단되었다. 즉, 참여, 동기 부여, 사기, 의사소통력, 정보기술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네트워크 경영학 교육은 바람직한 출발을 했다고 판단된다.

일부에서는 먼대면, 실시간 교육이 어렵다고 하여 가상교육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거나 이는 경험상 옳지 않다. 실제로 게시판이나 e-mail을 충분히 활용하여 기존 교실수업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가상교육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수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인터넷 수업은 공간상의 제약이 없다는 이유로 수백명씩 한 수업에 몰아 넣는다면 교수와 학생들간의 의사교환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인터넷 중심의 네트워크 강의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인식이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강의를 수강신청한 학생들이 수강을 철회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인터넷강의가 요구하는 능동적, 자율적 참여를 학생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 교실수업 방식 하에서는 학생들을 직접 먼대면으로 이끌 수가 있는데 인터넷강의는 수업이 학생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면이 크기 때문에 수업진행력이 미약하다. 인터넷 강의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업참여가 바

탕이 되어야 하는데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1/3은 잘 하지만 1/3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학생들은 모티베이션 시키고 이끌어 나가는 강의실 수업에서 보다 힘들었다.

인터넷 강의가 이름도 멋있어 보이고, 강의실 수업이 없으니까 학교에 안 나와도 되고, 특히 시험과 레포트가 없다는 매력으로 학기초의 강의신청 기간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신청한다. 그러나 정상적 인터넷 강의를 진행하려면 100명 이상의 인원은 절대 무리가 따른다. 학생들이 올리는 주제토론 글이 보통 일주일애 수십 개에서 백개 정도가 올라오는데, 그걸 다 읽는데 많은 교수자에게 많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강생의 제한이 불가피하였다.

그런데 일단 강의가 시작되면 수강 신청자중 절반은 탈락한다. 인터넷 강의가 시험이 없고 레포트가 없다고 해서 다른 과목의 교육분량보다 적다고 생각한 오산의 결과이다. 인터넷 강의는 교수 입장에서도 수업준비에 들이는 노력이 다른 과목보다 약 2배 내지 3배는 되고, 이 과목에서 A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다른 과목의 1.5배 내지 2배 정도의 노력을 들여야 했을 것으로 본다.

학생들의 인터넷 교육 수준 차이도 강의 진행상의 어려움으로 등장했다. 검색엔진이며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까지 자유로운 학생이 있었는가 하면 단순한 URL 접속조차 어려워하는 초보 수준의 학생들도 있었다. 이는 마치 영어 등 다수 외국어에 능통한 학생과 이제 막 한글을 떼 학생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 어려움을 주었다.

또한 수업방식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는 부분-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 및 팀별 과제 주제를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토론하게 하면- 에 대해서 익숙지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해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 레포트를 쓰는 건 잘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자율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은 두려워하는 현상은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탈무드를 보면 유테인들의 교육

방법 중 어린아이가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머니가 사탕을 줌으로서 '배우는 것은 즐거운 것'이라는 인식을 어릴 적부터 준다고 한다.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배운다는 것이 즐겁다는 인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인터넷 중심의 네트워크 교육방식은 새로운 교육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여타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교육은 이제까지 전통적인 교육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개념이다. 아직까지 가상교육의 교육학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나 효율적 수업방안 등 '네트워크 교육 모형'에 대한 연구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터넷 강의 초기에는 당분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중에서도 네트워크 강의를 교실수업에 전면 대체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 보완 교육수단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다. 또한 인터넷 강의를 할 경우 교수자에게 추가되는 강의 부담을 어떤 형태로 경감시켜 줄 것인가의 문제도 풀리지 않았다. 특히, 강의안을 홈페이지 형태로 구성하는 것은 강의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한편, 새로운 교육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 배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네트워크 교육의 초기 투자에는 인력과 재원이 필요하다. 대용량 컴퓨터 서버의 구축, 고속 통신망의 설치, 가상교육 프로그램의 작성 등이 자원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마치 기존 교육에서 수업을 위해 건물을 짓고 길을 깔고 교육안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해서는 기존 대학 시스템에도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만큼 각 대학의 교육 수요, 공급 및 전산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배분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화여대의 '경영과 사회' 수업을 집에서 공중회선을 통해 수강한 학생들의 적지 않은 수가 정보량이 큰 멀티미디어 자료 접속상의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4. 결 론

네트워크상의 교육은 경영환경의 변화와 경

영학 교육과정의 개편 요구 및 비용효과 측면에서 이제는 선택의 대안이 아닌 필수적인 방향이 되었다. 기업에서 이용하는 정보기술을 학습시키는 일이나 경영에 필수적인 여러 능력(팀워크, 의사소통, 시행착오를 통한 교육, 분석 도구의 사용 등 전통적인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결여한 경영 능력)을 학습시킨다든지, 수백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기존의 전통적 장서 위주 도서관의 비용/편익 효율적인 대체라는 점에서 네트워크상의 교육은 불가피하다. 또한 급변하는 기업환경에서 소속원의 재교육이 강조되는 바, 평생교육의 도구로서도 네트워크에 의한 교육은 시간/공간의 신축적 활용면에서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네트워크상의 교육이 인터넷의 보편화와 더불어 시작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 막 태어난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선진 외국과 비교해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정보기술과 관련한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최초 진입자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빨리 네트워크 교육으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속도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교실 강의 위주의 경영학 교육이 갖는 한계점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교육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은 실제로 경영학 교육에 인터넷을 활용한 사례로서 이화여대 경영학 교양과목인 '경영과 사회' 과목을 소개하고 교육효과와 개선점을 분석하였다.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실수업에서 보지 못한 활발한 쌍방향 자유토론의 활성화로 학생들의 창의적 비판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또한 경영학의 다양한 세부 분야들을 연결하는 통합적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강의는 성공적이라고 판단되었다. 참여, 동기부여, 사기, 의사소통력, 정보기술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네트워크 경영학 교육은 바람직한 출발을 했다고 판단된다.

네트워크 강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우선 네트워크상의 교육은 양적 교육(mass education)이 아닌 교육과정의 범위와 질을 향상하는데 주안

점을 두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안점이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교육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기존 교수요원이 정보기술을 익히고 강의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동인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나아가서는 경영학 각 분야를 정보기술을 기축으로 하는 새로운 교과과정으로 개편하여 통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교육은 신기술의 활용으로 기존 교실교육과 다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접속상의 문제 발생을 제거할 네트워크 속도 향상, 인터넷상의 강의록 작성과 평가를 지원할 평가조교, 기술조교 등 추가자원의 배정은 네트워크 교육에서 새롭게 등장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인터넷을 활용한 경영학 강의는 계속 확산되어 갈 것으로 예측된다. 인터넷을 활용한 네트워크 강의에 대해 아직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교실수업을 대체하느냐,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문구대로 읽어 피상적 의견이라면 이는 옳치 않다. 그러나 네트워크에서의 강의 경험상 인터넷 강의를 앞으로 교실수업을 전면 대체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또 그래서는 안된다는 실제 현장 경험에서의 판단이라면 이에 동의한다. 인터넷 강의는 어떤 과목들에 있어서 새로운 한가지 교육도구로서 시도되는 것이며, 경영학이 이의 적절한 대상의 하나일 뿐이다. 교수들이나 학생들은 경영 및 경영교육에 있어 새로운 매체(인터넷)의 잠재적 효용성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태세를 갖고 네트워크상의 교육이 기존 강의의 대체가 아닌 보완적 수단으로 더없이 훌륭함을 인식하는 것이 요체라고 본다.

참고문헌

- [1] 권순범 외 5인, 『인터넷이 기업경영을 바꾼다』, 영진출판사, 1998.
- [2] 김광용, "인터넷을 이용한 효과적인 원격 수업의 운영-경영모의계임을 중심으로-," 『경영정보학연구』, 8권 1호(1998년 6월), pp. 125~144.

[3] “김진호 교수와의 인터뷰,” 『이화여대 교지』, 1998 가을호.

[4] Chellappa, Ramnath, Anitesh Barua, and Andrew B. Whinston, “An Electronic Infrastructure for a Virtual University,”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40, No. 9 (September 1997), pp. 56~58.

[5] Dyer, James, Leon Lasdon, and Timothy Ruefli, “The Techno-MBA,” *OR/MS Today*, Vol. 25, No. 1 (February 1998).

[6] Lawhead, Pamela B., Elizabeth Alpert, Constance G. Bland, Linda Carswell, Dawn Cizmar, Jean DeWitt, Mihaela Dumitru, Eva R. Fahraeus, and Kirk Scott, “The Web and distance learning what is appropriate and what is not,” (report of the ITiCSE '97 working group on the web and distance learning), Integrating technology into computer science education: working group reports and supplemental proceedings, 1997, pp. 27~37.

[7] “금융이야기,” <http://mm.ewha.ac.kr/~jhkim/>

[8] “탈시공,” <http://yes.cau.ac.kr>

[9] “Distance Education at a Glance,” <http://www.uidaho.edu/evo/distglan.html>

[10] “Model of Distance Education.” <http://www.umuc.edu/ide/modlmenu.html>

[10]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http://www.ecommerce.gov/emering.htm>

[11] “The Techno-MBA,” <http://lionhrtpu-b.com/ORMS.shtml>

양 광 민



1970 서울대 경영학 석사
 1972 미네소타대 경영학 석사
 1980 UCLA 경영학 박사
 1993 한국생산관리학회 회장
 1996 한국경영과학회 회장
 현재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Biz연구회 회장
 관심분야: 『정보체계론』, 『마이 크로 컴퓨터의 활용』, 『정보처리론』, 『자바&자바<applet>』, 『인터넷이 기업경영을 바꾼다』

e-mail: yang@acm.org

김 진 호



1985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1985~1993 쌍용경제연구원 연구원
 1992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경영학 박사
 1993~1995 한국금융연구원 부 연구위원
 1995~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투자론, 금융시장, 금융기관, 위험관리, 파생금융상품, 국제금융.

시계열분석, 예측
 e-mail: jhkum@mm.ewha.ac.kr